

■ 연구원 소식

○ 한고연 “영상택배” 안내

21세기 들어 올해와 같은 봄을 지나고 있던 때가 있었을까요? 자정 능력을 상실한 인간들에게 자연은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가를 사무치게 가르쳐주고 있는 시간이 흐르고 있습니다. 자연에 대한 경외심과 별개로 여전히 우리는 차별과 혐오, 연대와 협동이 씨줄과 날줄로 얽힌 복잡한 일상을 힘겹게 밀어내고 있습니다.

생활방역체계로 코로나19 대응 자세가 완화되자마자 연이어 일어나고 있는 지역 감염 확산으로 인해 한 공간에서 얼굴 마음과 이야기를 나눌 기회를 준비하고 기대하던 이들이 가지게 된 아쉬움은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연구원에서 계획되었던 사업 일정도 마찬가지로 연기에 연기가 거듭되고 있습니다. 아쉬움을 넘어 안타까움이 넘쳐납니다. 지난 4월 24일 열린 연구원 운영위원회에서는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에 따른 사업 연기 대책의 일환으로 영상으로나마 회원들에게 마음을 나눠볼 기회를 찾기로 했습니다. 이에 5월 12일 다큐멘터리 ‘하나씨의 툇마루’를 보내드린 것을 시작으로 전주대 온다라 지역인문학센터의 협조를 얻어 온라인 인문강좌 서비스를 진행합니다.

이번 주부터 뉴스레터와 함께 보내드리는 인문강좌 영상택배로 코로나19를 밀어내는데 조금이나마 힘을 얻으실 수 있길 빌고 또 빌겠습니다.

○ 유영봉 교수와 함께하는 “스리랑카 한 달 살이 이야기” 연기 안내



유영봉 교수님과 함께하는 스리랑카 한 달 살이 이야기 나눔이 코로나19 종식을 위한 물리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 연기되었습니다.

향후 구체적 일정이 수립 되는대로 연락 올리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건강 잘 지키시고 늘 화평한 날만 함께 하시길 빌겠습니다.

■ 역사속의 오늘

암흑의 시대를 밝힌 조용한 햇불 (1981. 5. 27)

그는 1959년 전라도 광주에서 구남매 가운데 여덟째로 태어났다. 학창 시절 내내 성당 학생회에 참여해 가톨릭 교리에 대해 공부했고 교리 교육 때 뛰어난 성적을 거뒀다. 신학대를 가고자했으나 어머니의 만류로 재수 끝에 서울대학교에 입학하게 된다. 대학에 입학한 1978년은 유신독재의 압제가 절정에 달했던 해였다. 대학에는 수많은 사복경찰이 상주했다. 긴급조치 9호로 인해 유신을 비판하는 말 한마디로도 체포될 수 있던 시기였다. 그 역시 유신체제에 강한 염증을 느꼈지만 학생운동에는 거의 참여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불의에 저항하지 못하는 자신이 부끄러웠다. 수많은 학우들이 유신체제에 저항하다 고통을 겪었고, 더 많은 사람들이 군부독재 아래에서 신음했고 그는 홀로 괴로워했고 자신이 나아갈 길을 고민했다. 그의 고교, 대학 친구였던 이홍철 변호사는 대학 신입생 시절부터 그의 책상 앞에 **‘사랑의 사회실현과 진리탐구를 위한 끊임없는 노력, 이것이 내 삶의 전부이기’**라는 글귀가 있었다고 증언한다.

10.26으로 막을 내린 유신독재는 민주화의 봄 앞에 그 잔상마저 녹아버리는가 싶었으나 전두환을 비롯한 신군부는 민주인사 수백 명과 학생대표 백여 명을 연행한 후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 실시했다. 공수부대가 도륙한 5월 광주는 그의 고향이었고 그 날 소리 없이 쓰러져간 이들은 그의 이웃이었다. 그가 살았던 광주 집은 금남로 곁이었다.

광주에서 벌어진 학살은 그의 마음에 큰 응어리로 남았다고 비극의 한가운데 선 사람들이 생생하게 그려졌다. 하지만 정부와 언론은 시민을 폭도로 몰았고 어느 누구도 계엄군의 잘못을 지적하지 않았다. 그는 사람들이 거대한 불의를 보고도 침묵하고 자신도 침묵을 강요받는 현실이 한없이 고통스러웠다.

1981년, 5월 27일 오후 3시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앞 아크로폴리스 광장에는 가슴에 검은 리본을 단 1천여 명의 학생들이 모였다. 학생들은 광주항쟁에서 숨진 이들의 넋을 기리고,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침묵시위를 벌였다. 곧 학생 수보다 더 많은 전경이 달려와 시위를 저지했다. 도서관 6층에서 이 장면을 지켜보던 그가 “전두환 물러가라!”를 세 번 외치고 창밖으로 몸을 던졌다.

경찰은 피를 철철 흘리는 그 주변에 최루탄을 난사해 학생들이 모이지 못하게 했고 결국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숨을 놓았다. 그가 투신한 다음날 신문에는 "서울대생 도서관에서 투신 사망"이라는 단신 기사가 실렸을 뿐이었다. 어느 언론도 그의 죽음을 광주와 연결 짓지 못했다. 그가 숨을 놓은 다음날 신문과 방송을 도배한 것은 당시 전두환 정권이 기획한 관제행사인 "국풍 81"이었다.

그러나 그가 투신한 다음날인 5월 28일 도서관 벽에 붉은색 페인트로 "파쇼 타도" "전두환 타도"라는 글이 쓰이고, 2천여 명의 학생이 시위를 벌였다. 학생들의 추가 시위를 우려한 학교 측은 5월 29일부터 6월 14일까지 중앙도서관을 17일 동안 폐쇄하기도 했다.

1981년 10월 23일 서울대 중앙도서관 3층 난간에서 '반파쇼 민주투쟁 만세'라는 유인물을 배포하고 도서관과 학생회관을 돌며 시위한 혐의로 학생 5명이 구속되었다. 1981년 11월 25일에는 중앙도서관 5층 난간과 아크로폴리스 광장에서 유인물을 뿌리고 횃불과 메가폰을 활용한 시위가 이어졌다. 이 사건으로 3명이 구속되었다.

이후 서울대 중앙도서관 창문에는 쇠창살이 세워졌고 이듬해 4월 그가 생전에 마지막으로 바라본 도서관 아래 아크로폴리스 광장에는 가시가 촘촘한 장미 울타리가 만들어졌다. 한동안 군가 "전선을 간다"를 개사한 아래와 같은 노래가 시위 현장에서 불리곤 했다.

“장미꽃 만발한 아크로폴리스 / 쇠창살 둘러친 면학의 도서관
젊은 녀 스러져간 그때 그 자리 / 상처 입은 노송은 말을 잊었나
학우여 들리는가 그 성난 목소리 / 학우여 보았는가 한 맺힌 눈동자.”

불의한 권력에 항거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빼앗겼음에도 누구도 선뜻 이를 잘못됐다고 지적하지 않는 시대였다. 결국 누군가는 모든 것을 바쳐 이 침묵의 부조리함에 경종을 울려야 했고 그는 자기 자신이 그 사람이 되고자 했다. 그에겐 돌맹이도 유인물도 필요하지 않았다. 그는 다만 자신을 제물로 바쳤다.

그의 피로 적셔졌던 대지는 진실을 향한 발걸음을 주저하던 이들에게 용기라는 양분을 나눠주었고 오늘 우리 역사를 이만큼 밀어오게 만들었다. 약한 사람을 사랑하던 그의 마음, 정의를 온 몸을 다해 쫓았던 용기, 비할 수 없는 자기희생... 한 시대가 지워지지 않게 만드는 것에 참으로 많은 목숨들이 필요하다.

독실한 천주교 신자였던 그가 받은 세례명은 다두(타대오)였다. 절망과 신념을 잃은 사람들의 수호 성인인 다두가 세례명으로 정해질 때 그가 짊어져야 할 역사의 무게가 정해졌던 것은 아닐까?

39년 전 오늘, 목숨을 던져 광주 학살의 진상규명을 외쳤던 '다두(타대오)' 김태훈이 우리에게 전하고자했던 것을 생각해본다.



1990년 11월 2일 서울대에서 열린 김태훈 추모비 건립식

■ 천년 암자에 오르다

남해를 품은 <금오산 향일암과 백도> 세 번째 이야기 “나를 되돌아 보는 향일암” 1부

유영봉(연구원 평의원 / 전주대학교 역사문화콘텐츠학과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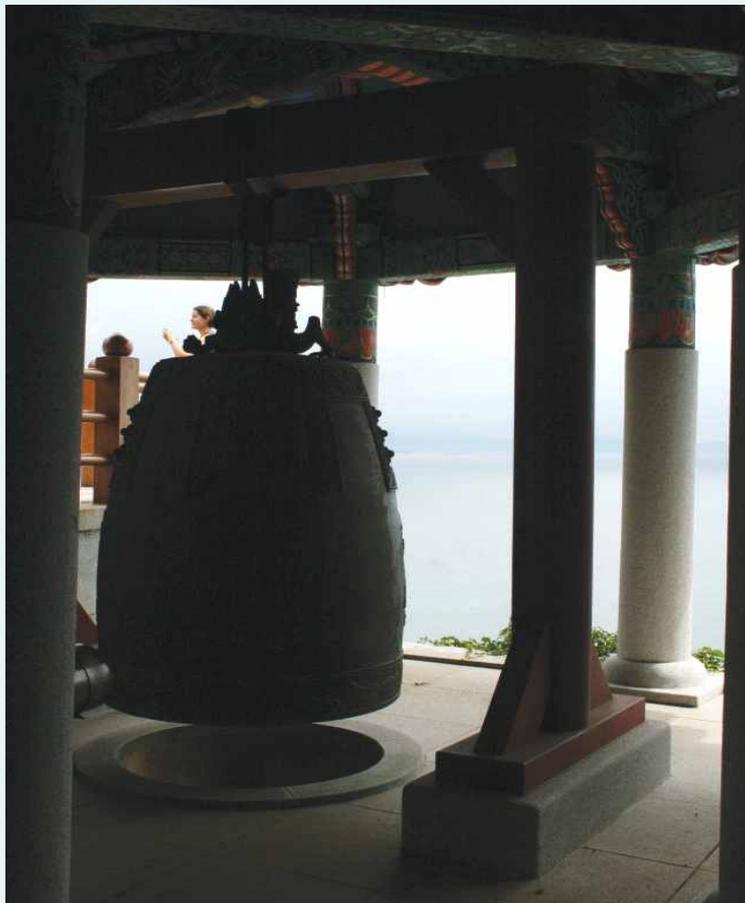
향일암 원통보전 |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의 손에 의해 소실된 옛 모습이다. 돌이켜 보면, 지나친 단장이 불의의 화를 불러온 건 아닐까?

경내에서는 제일 먼저 금빛 찬란한 원통보전이 나그네를 맞는다. 금오산에 자리 잡은 암자라는 이유로 근래에 들어 금박을 올린 모양이다. 해풍에 빛바랜 단청이 오히려 관록을 보여 주던 옛날의 검소한 모습과는 거리가 멀다. 게다가 앞쪽에 금 거북이를 세울 예정이라고 한다.

원통보전은 창공 아래의 '경전바위'를 배경으로 삼았다. 불경을 다 꿰뚫은 원효스님이 이제는 방편에서 벗어나자며 내던진 책들이 돌로 변했다는 전설이 전해 온다. 마치 책갈피를 펼쳐 놓은 듯한 네모난 바위들로 이루어졌다.

여기 향일암은 말 그대로 해를 바라보는 자리다. 아침에 이글거리며 타오르는 선홍의 광염에서부터 장엄하게 스러지는 낙조까지 종일토록 해를 바라보는 곳이다. 이른 아침 햇살의 수줍음에서 내일을 설계하고 한낮에 내리쬐는 강렬한 직사광선에서 오늘을 마주하며 오후의 이우는 저녁 빛에서 어제를 되돌아보는 선남선녀들을 위한 참 좋은 자리다.

거룩하고 영험한 곳이라서인지 이곳에 불어오는 해풍은 소금기가 없다고 한다. 특히 흐리고 눅눅한 날씨가 비오는 날에도 살갓이 전혀 끈적거리지 않는다고 한다. 이 또한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향일암만의 신비한 현상이라고 하겠다.



향일암 범종각 | 범종은 본래 불가의 사물(四物) 가운데 하나로, 땅속에 사는 생물에게 불심을 불러일으키는 도구다. 그런데 이곳의 범종은 바다를 바라보며 자태을 뽐낸다.

범종각이 원통보전 앞에서 바다를 내다본다. 향일암은 먼바다까지 원음圓音으로 울려 퍼지는 해맑은 종소리를 듣는 곳이다. 범종각이 소리를 멈추면 이제 다른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끼룩거리며 날아가는 갈매기 소리와 이따금 울리는 뱃고동 소리는 물론이요, 하늘이 주는 적요의 소리까지 듣는 곳이기도 하다. 후두둑 거리는 빗발은 때때로 찾는 손님이요, 하늘하늘 내리는 눈송이는 겨울의 진객이 주는 메시지다. 태풍과 해일은 광풍과 노도로 다가들지만, 그 안에는 바다가 들려주는 내면의 소리가 숨어있다. 고요 속에서 꽃피는 소리가 들리고 나뭇잎 지는 소리가 들려오는 곳! 이곳이 바로 향일암이다.

범종각 옆 약수터에서 맑은 물이 솟는다. 거북이 등으로 둘러싸인, 거북이 등에서 솟는 독특하게 생긴 약수다. 본래 거북이는 십장생十長生 가운데의 하나로 꼽히는 영물이다. 그러기에 이 물은 필시 불로장생을 보장하는 약수가 아닌가 싶어 꼭 마셔 보게 된다. 이곳에 전설 한 자락이 깃들었다.

어느 날 만행에 나선 원효스님은 한반도의 끝 여수까지 내려왔다. 나룻배를 타고 돌산으로 건너와 70리 산길을 걸어 깨개의 금오산에 이르렀다. 해변의 깎아지른 절벽으로 오른 스님은 이곳에 기도처를 세우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그러나 식수원이 없기에 스님은 아쉬운 마음을 머금고 돌아설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백포목에 이르러 금오산 동쪽 거북이 목처럼 생긴 형상을 되돌아보게 되었다.

이때 금오산의 바위들이 거북이 등껍데기 같은 문양이라는 사실을 머릿속에 떠올렸다. 금오산이 거북이 모양이면 필시 소변을 보는 곳이 있으리라 여긴 원효스님은 배설기관에 해당하는 자리로 다시 올라와 살펴보았다. 그리고 마침내 여기에서 생수가 솟는 것을 확인하고, 위쪽에다가 원통암을 지었다고 한다.

다음 주는 남해를 품은 <금오산 향일암과 백도> 네 번째 이야기 “나를 되돌아 보는 향일암 2부”로 여러분 곁을 찾아오겠습니다.